

Awana Family

울산교회 김현희 선생님

저는 울산교회 어와나를 섬기는 김현희 집사입니다. 우리 집은 세 명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어와나가 처음 시작될 때 큰 애는 6학년, 둘째는 4학년, 셋째는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어와나에 입단하기를 희망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서 추천을 하게 되었는데, 추천 결과 셋째가 입단을 하게 되었지요. 둘째 성권이는 찬양을 잘 하여서 가족 예배 때 주일학교 대표로 찬양팀 일원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해가 지나서 다시 어와나 신 입단원을 뽑게 되었는데, 우리 부부는 둘째를 계속 찬양팀에 있게 할 것인지, 어와나에 입단시킬 것인지에 대해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권이를 어와나에 입단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계속 성권이를 찬양팀에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고 말하면서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일로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고, 결국 제가 교사로 섬기고 성권이를 어와나에 입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권이는 2년만에 핸드북 4권을 다 마쳤습니다. 또, 성권이가 운동이나 몸을 움직이는 일에 미숙했는데 어와나의 게임 덕에 6학년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을 했습니다. 성권이가 무척 대견스러웠고, 또 자랑스러웠어요. 성권이 말하기를 어와나의 평소 훈련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셋째 성강이는 불티단에서 암송에 관련하는 모든 것을 다 마쳤고, 지금은 T&T 2년차를 끝냈습니다. 방학 때마다 열심히 한 학에 두 개의 암송핀을 늘 받았고, 영어 암송핀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데 이것에 대한 영향으로 저희 가족은 모두 함께 영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공부법이 있는 것이 아닌, 단순히 영어 사전을 가지고 단어를 찾아가면서 CD를 듣는 등 온 가족이 함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암송핀이 열 다섯 개나 됩니다. 과연 성강이의 외우는 실력은 눈이 부셨고, 저 역시 암송핀에 도전하여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작년 후반기부터 어와나 찬양팀 반주로 섬겼고, 성권이 역시 헬프로 어와나를 봉사합니다. 저는 찬양 인도와 회계로 어와나를 섬기는데, 어와나를 섬기는 홍씨네 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두 교회만이 어와나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적극적으로 어와나를 홍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극동방송에도 어와나를 알리는 글을 투고하고, 있는 힘껏 봉사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어와나를 통해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라난 이후에도 지금의 솔한 성경 암송은 어려운 환란 중에서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Happy Awana Family

My name is Hyun Hee Kim. And I am serving for the Awana clubs in Ulsan Church. I am a mother of 3 children. When our church started Awana club, my first boy was 6th grade, my second son was 4th grade and my third was first grade. At that time, our church had received applications to join the Awana club. The numbers applied were over the cutoff. So we had to choose first Awana clubbers by lot. My third son, Sung Kang was only selected. My second son, Sung Kwon join Sunday choir team in the worship service instead. One year later, Awana club received another applications. My husband and I were considered whether Sung Kwon stay in Sunday choir team or apply Awana club. I wanted him to apply Awana club while my husband wanted him to stay in choir team. We made discussion and learned it should be the prayer request. After praying together, we decided that Sung Kwon would apply Awana club and I also join the club as a leader.

Sung Kwon finished his 4 T&T handbooks within 2 years. And Sung Kwon ran the race and got first prize in his school field day. Sung Kwon was not good at racing but he confessed that he had got benefit from the weekly training in Awana game time. My third son, Sung Kang also finished his Sparks club and now is in 2nd year of T&T. Sung Kang received 2 memory fins every vacation and now he is trying to receive English memory fins, too. Our family started learning English all together to help Sung Kang. There is no special method but we listen English CD together and trying to find word's meaning from the dictionary. Now we all have 15 memory fins. I think my third son, Sung Kang is keep on improving his ability of Scripture memory which challenge me to try to receive my fins. From the last year, my first son is serving piano player in Awana club and my second son, Sung Kwon is serving Awana club as a leader-in-training and I am serving Awana club as a club secretary and worship leader. This made us well-known Awana Hong family in our church. (Hong is our last name.)

Now we have only 2 Awana churches in Ulsan area. So I am eager to introduce Awana ministry in our area. I am trying to explain the benefit we received from Awana ministry to my friends and I even sent my letter to FEBC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 on the radio. All of my family appreciate the Awana ministry. And I believe that the Bible verses my children memorized will be the source of their strength in the midst of their life difficulties.

